

성명	한글 (한자, 예명)	김죽과	지역	영암군	사 진 
	분야	국악	출생 ~사망	1911~1989	
개요	가야금산조의 명인.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제23호				
연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1년 출생 ▪ 가야금산조의 명인, 김죽과류 창작 ▪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예능보유자(1978) 				
생애 및 활동	<p>1911년 2월 11일 김낙권(金洛權)과 모친 오(吳) 씨의 첫 딸로 태어났으나 태어난 지 열 달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할아버지 김창조와 할머니 아래 성장하며 할아버지에게 풍류 한바탕을 배웠다.</p> <p>1918년(8세) 때 할아버지를 따라 전주권번(全州券番)에 가서 김복실(金福實)에게 가곡을 배웠다. 1919년 할아버지의 사후 13세까지 한성기(韓成基)의 문하에서 가야금산조와 가야금병창 및 "토끼화상"·"이별가" 등을 배웠다. 1922년부터 1923년까지 김창환이 이끄는 협률사(協律社)에 참가해 광주·진도·해남·강진 등지를 돌며 판소리의 토막가락과 가야금병창을 공연했다. 1923년 양부모를 따라 장흥으로 이사해 그곳에서 최옥산(崔玉山)·한수동(韓壽童)과 교류하였다.</p> <p>1926년 16세 때 상경하여 조선권번(朝鮮券番)에 기적(妓籍)을 두고 김운선이라는 예명으로 최고의 가야금연주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떨쳤을 때 임방울(林芳蔚)·김봉이(金鳳伊)·김정문(金正文)에게 소리를 학습했다. 한성준(韓成俊)에게 승무를 사사했으며, 오태석(吳太石)·심상건(沈相健)·박동준(朴東俊)에게 가야금병창(伽倻琴併唱)을 배웠다.</p> <p>1930년(20세) 조선극장에서 열린 팔도명창대회 때 가야금산조를 연주했고, 다음해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 초청으로 김채련·박채련과 함께 출연하여 가야금을 연주했다. 당시 오케레코드사에서 가야금산조와 가야금병창을 한성준의 반주로 취입하였다. 1932년 이민택(李民澤)과 결혼한 후 10년 동안 권번과의 인연을 끊었다. 1942년 이민택의 사후 1944년 이완규(李玩珪)와 재혼한 이후 외부 활동을 그만두고 가정생활로 돌아가 공식적인 연주활동을 접었다.</p>				

	<p>1968년 이완규와 숙질 간이던 이혜구(李惠求) 교수의 소개로 이재숙과 김정자 등 대학 출신들에게 가야금을 가르치다가 1978년 1월 2일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됐다. 문하생으로 양승희·문재숙·박현숙·서원숙·민미란·이재경 등이 있다.</p> <p>1979년 9월 19일 제1회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때, 10월 16일 제10회 중요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발표공연 때, 1981년 8월 24일 대한민국 국악제의 「가야금산조의 밤」 때, 10월 29일 무형문화재 초청연주회 때, 1982년 4월 29일 조선일보 제1회 국악대공연 때, 11월 5일 제13회 중요무형문화재 발표공연 때, 1988년 2월 16일~3월 16일 국립국악원 개관기념 공연 때, 그리고 3월 16~29일 국립국악원 신축청사 개관기념 대공연 때 출연하였다.</p> <p>1989년 3월 3~5일 일본초청공연 때 출연했고, 또한 뿌리깊은나무사의 산조선집을 위한 취입을 마치고, 5월 19일 세상을 떠났다.</p>
기록물	[네이버 지식백과] 김죽과 [金竹坡]
참고문헌	(한겨레음악대사전, 2012. 11. 2., 도서출판 보고사)
기 타	▪